

제 22회 두 짐승 (13:1-18)

계시록 13:1-18절은 12:13-17절과 평행을 이룬다. 또한 13장은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의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록 사단이 패했지만, 그는 아직 까지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13장은 또한 사단이 자신의 핍박을 대항하는 에이전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3장에서 요한은 다니엘 7장으로부터 많은 심상들을 가져와 설명을 하고 있다.¹⁾ 12장에서는 붉은 용이 여자와 그 후손을 핍박하였는데, 13장에서는 그의 부하 바다짐승(1-10절)과 땅 짐승(11-17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12장에 나온 용은 옛 뱀인데 이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나며,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의 제국주의적 권력을 나타내며,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황제 숭배의 전파 매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세 존재들은 사단 적인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 낸 것으로 ‘가짜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바다로부터” 나오는 존재는 외국인으로 생각하였고 무엇이든지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자국민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에베소에 자주 나타났던 로마의 황제 통치 세력이었다. 로마의 배들은 소아시아 바닷가에서 볼 때 수평선 위로 출몰하는 모습이 마치 바다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짐승은 자국 안에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세력들을 대표하는 것이다.²⁾ 다시 말해, 로마 황제 숭배의 전파 매체 역할을 하는 세력들을 말한다.

1-2절

이 말씀은 다니엘 7:1-7절을 창조적으로 다시 구성한 것이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과 그의 “열 뿔”은 특별히 다니엘 7:2-3절과 7:7, 20, 24절에 근거한 것이다.³⁾ 구약에서 예외 없이 바다짐승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사단의 왕국을 대표해서 나타난다.

짐승의 열 뿔은 열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짐승의 뿔 위에 있는 “열 면류관들”은 땅의 왕들을 말해 주는 것이다(12:3절과 같이). “바다”는 “무저갱”(abyss)과 동의어로써 악령을 하나님의 권세아래 묶어두는 영적인 창고와 같은 곳이다. 면류관들은 또한 짐승들의 잘못된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면류관들”(19:12, 16)을 쓰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권세와 대조하기 위하여 묘사된 것이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적

1)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680.

2) W. M. Ramsay,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and Their Place in the Plan of the Apocalyps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4) 103-104.

3)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683.

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⁴⁾ 이러한 일들을 로마 황제 숭배에서 행했던 것이다. 소아시아에서 신전들은 로마와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되어졌으며, 동전들에는 황제들의 신적인 이름들이 새겨져있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강요한 인물이었다.

요한의 시대에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로마로 인식되었다. 때때로 로마는 “에돔” 또는 “바벨론”(Sib. Or. 5.137-61)으로 불리어졌으며, 요한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으로 사용한다. 특별히 17장에서 그러하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 그 발은 곰의 발 같고(다니엘이 본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다니엘이 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았다), 열 뿔이 있었다(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였다’). 이러한 형상들은 이 타락한 세상의 일련의 제국들의 두려운 면과 야만적이고 불경건함을 강조하는 것들이다.⁵⁾

3-4절

본문의 짐승의 정체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3절)라는 말씀이 더 밝혀 준다. “죽게 된 것 같다”는 표현은 실제로 죽지 않았으나 죽은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경우(5:6)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다. 죽었으나 그 죽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을 말한다. 바다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 내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본문의 짐승은 네로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네로는 A.D. 68년에 자살했으나 그는 죽지 않고 동쪽으로 피신했다가 승리 중 귀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네로가 워낙 무시무시한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1세기말에는 그가 아직 살아 있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가 부활해서 다시 박해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네로 부활’(Nero redivivus)신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로마제국의 황제 숭배라고 결론짓는 것이 타당하다.

6-7절

이 짐승은 누구와 싸우는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6-7절). 이 말씀에 의하면, 짐승은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는데 그 권력을 사용한다. 본문의 짐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존재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8절)는 말

4) G. R. Beasley-Murray, The Book of Revelation 199.

5) Philip E. Hughes, The Book of The Revelation 146.

숨을 보더라도, 본문의 짐승에게 속하여 경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고 짐승이 공격하는 자들은 신자들임이 분명하다.

짐승은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5절)고 한다. 마흔 두 달은 삼 년 반이고, 삼 년 반은 1260일과 동일한 기간이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렇다면 짐승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훼방하고 박해하는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다.⁷⁾

11-12절

새로운 섹션에서 요한은 다른 하나의 짐승을 보게 된다. 11-18절은 1-8절과 똑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번째 짐승인 제국의 선전 요원(동맹국)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의 짐승의 이미지는 5장 6절에 나타나는 메시아적인 양을 모방(parody)한 것이고 그 양과는 아이러니컬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짐승은 뿔을 가지고 있는 양같이 생긴 것이다. 5장에서 메시아적인 양은 일곱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은 왜 두 뿔을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 이유는 11:3-4절에 나오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흉내 내는 것이다. 또한 두 뿔은 다니엘 8장의 악한 통치자를 반영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짐승이 다니엘 7장의 짐승으로부터 묘사된 것이라면,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은 다니엘 8:3절로부터 온 것이다.⁸⁾

땅으로부터 나온 이 짐승은 나중에 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거짓 선지자”(16:13; 19:20; 20:10)이다. 진정한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로마제국을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로마 황제 숭배로 인도하는 선전 요원들인 것이다.

6) 세대주의자들은 이 기간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이레의 마지막 이레, 즉 제 70이레의 후 3년 반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후 3년 반이 될 수 없는 것은 다니엘 9장 24-27절의 70이레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 69이레와 제 70이레 사이에 교회 시대라는 괄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70년 말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70이레인데,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중간에 단절이 없었던 것처럼 70이레도 중간에 단절이 없다. 또한 70이레의 처음 7이레와 그 다음에 오는 62이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것처럼 제 69이레와 제 70이레 사이에 시간적 간격(교회시대)이 없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승천하신 후에 12장 6절에 바로 뒤이어 교회가 광야세상에서 양육 받는 기간으로 1260일이 나온다. 이것은 메시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1260일, 42개월, 즉 3년 반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7) Ibid. 287.

8)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707.

9) Ibid.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편에 서기를 말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사람들로 제국의 황제 숭배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사용한다. 이 말은 그가 그 권세를 첫 번째 짐승 “앞에서”행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짐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이 권세는 또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13:4). 두 번째 짐승은 자신의 권세를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사용한다.¹⁰⁾

13-15절.

땅 짐승은 단순히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13-15절). 바울이 예언한 대로 ‘불법의 사람’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가지고 임한다(살후 2:9-10). 초기의 이방 종교에 마술이 성행했으나(행13:6이하; 16:16; 19:13 이하), 땅 짐승은 실제의 기적을 행한다. 심지어 엘리야와 두 증인처럼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도(왕상 18:38; 계 11:5)하고 바다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한다. 우상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시몬 마구스가 우상들에게 생기를 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말씨는 ‘우상에게 영을 준다’는 것으로 생명을 주는 성령을 흉내 내는 것이다.

주님은 재림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가짜 표적들을 행할 것을 경고하셨는데(마 24:24-25) 본문의 땅 짐승은 가짜 표적들을 행하여 진리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바다짐승을 경배하게 만들 것이다. 땅 짐승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다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뿐 아니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한다(15절).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황제 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해 주는 말씀이다(2:10; 11:4). 요한 당시에 이미 이런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는 이와 유사한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등장할 것이다.

16-17절.

모든 사람들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은 불순종하는 종들이나, 병사들 그리고 종교적인 신들에게 충성을 헌신한 자들에게 찍는 쇠도장 또는 문신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종들의 쇠도장을 마음에 두고 기록했다면, 그 짐승의 숭배자들은 짐승의 재산으로 본 것이다. 만일 병사들 또는 종교 헌신자들의 쇠도장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경배자들은 그 짐승의 충실한 추종자들일 것이다.¹¹⁾ 그 표는 분명히 상징적인 표식이다. 이는 로마 제국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10) Ibid. 708.

11) R. H. Char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I (Edinburgh: Clark, 1920) 363.

송배를 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표식인 것이다. 디오클레티안과 데시우스의 박해 때에는 제국에 충성을 하는 자들과 황제 송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증명(certificates)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거나 파는”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일은 계시록 2:9절과 6:5-6절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들이 크리스천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다.¹²⁾

재미있게도 이그나티우스(Magnesians 5)는 요한이 사용한 “표”와 같은 방식으로 동전 은유를 사용 한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동전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것이다. 그리고 각각 동전에는 도장이 새겨져 있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의 도장이 찍혀있으나,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이 찍혀있다.” 만일 계시록 13:16-17절에서 “표”가 문자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경제적인 매매 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의 표를 받아서 거래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는 말씀은 7:3-8절에 나타난 “인”과 대조가 되는 패러디(parody)이다. 7장에서는 그 인이 신실한 크리스천들 “이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¹³⁾

신실한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인 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신자들에게 있는 “표”도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표는 또한 그리스도와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의 이미지(또는 character)가 도장으로 찍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토라를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고 하셨다(출 13:9, 16; 신 6:8; 10: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마”는 사상적인 헌신을 말하며, “손”은 그 사상적인 헌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구약 공동체의 믿음을 회화적으로 나타냄으로서 그들의 멤버십을 보여준 것처럼, 손과 이마에 있는 짐승의 표도 짐승을 섬기는 자들의 충성심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⁵⁾

18절.

18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이다. 그 숫자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고 해석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 고안된 가

장 대중적인 방법은 소위 ‘게마트리아’(gematria)로 알려진 기술인데, 이것은 알파벳의 철자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개별적인 수가 있다는 것에서 착안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것으로 어구의 수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림으로써 감추어진 의미를 파헤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일찍이 속사도 시대에 해석학의 한 방법으로서 게마트리아를 수용한 예가 있었다. 이러한 일은 수없이 많았고 그것들은 대부분 해석자 각 사람의 주관적인 전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해석자에 따라 그 내용이 심히 달라 심지어는 서로 상충되기까지 하였다.¹⁶⁾

일반적으로 많이 주장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테이노스에 의하면 666이 네로, 칼리굴라, 도미티안, 혹은 시저들 전체, 로마 제국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는 히브리어, 헬라어, 혹은 라틴어를 동원하여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 기에트는 줄리어스 시이저(Julius Caesar)로부터 베스파시안(Vespasian)까지 로마 황제들의 첫 글자들을 합하니 666이 되었다고 한다(K=20, S=200, T=300, G=3, K=20, N=50, G=3, O=70). 가장 많이 제외되는 것은 네로 시저(Nero Caesar)이다. 네로의 헬라어 이름으로부터 히브리어 이름으로 번역을 하면 *nron qsr*이 나온다. 여기에서 666을 산출해 내는데, *nun*=50, *resh*=200, *waw*=6, *nun*=50, *qoph*=100, *samech*=60, *resh*=200이 나오는 것이다.¹⁷⁾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히브리어로 번역된 네로 시저의 이름에서 *yodh*를 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Philip E. Hughes가 말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요한이 제시한 짐승의 수 666의 뜻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그것이 사람의 수라는 것이다. 6이라는 수가 하나님의 수인 7에서 항상 모자람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럴 듯한 이해이다. 이것에 근거해 볼 때 삼중적인 육(666)은 인간 또는 인간적인 삼위일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방, 즉 그 모방이 암시하는 지고한 능력과 권세를 사칭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본문이 들어 있는 전후 문맥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삼위일체는 하나의 마귀적인 목적, 즉 창조주를 폐위하고 피조물을 보좌에 앉히고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 대신에 짐승의 형상으로 대체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연합된 사단(용)과 로마 황제 송배(첫 번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두 번째 짐승)로 구성된 삼위일체인 것이다.

[퀴즈]

* 666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 사람의 수

12)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715.

13) Ibid. 716.

14) *Karagma*의 의미는 “표” 또는 “도장”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15)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716-717.

16) Philip E. Hughes, The Book of The Revelation 154.

17)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719.